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월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요한1서 1장 5절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12월 29일 (금) / 오픈도어의 사역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은 박해 받는 교회의 어린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방학 중에는 트라우마 상담과 치유 캠프를 제공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 받는 교회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역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12월 30일 (토) / 오픈도어의 사역

오픈도어가 계속해서 박해 받는 가족과 교회를 연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범을 따르고 박해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12월 31 (일) / 전세계 교회

전 세계의 헌신적인 신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갖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교회와 지체들이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해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와 봉사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기도월력을 신청하세요!
기도회에서 나누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부수대로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를 구독하세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식과 기도제목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다양한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을 미워하며 자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라고 배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합니다.

12월 24일 (일) / 성탄절 전야

성탄절을 통해 세상, 특히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에 사는 제니(12세)는 "저는 성탄절이 되면 행복해요.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요."라고 말합니다. 박해 받는 몸의 지체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5일 (월) / 성탄절

박해로 인해 성탄절에 헤어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가족은 믿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6일 (화)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을 버린 사람들로 낙인 찍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이 주관하는 사회경제적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7일 (수) / 인도네시아

여성 훈련 센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느질과 같은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여성들은 축복 받았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여성훈련 센터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회심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12월 28일 (목) / 네팔

네팔에는 힌두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폭도들은 최근 교회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네팔에 평화가 깃들고 폭력적인 공격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이 종식되고 지역 사회의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12월 19일 (화) / 인도

인도의 일곱 살 난 로산(가명), 그의 형 아루쉬(가명), 어머니 데비(가명)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후 힌두교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데비가 재정적 안정과 생계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자녀 로산과 아루쉬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며, 재정적인 공급과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이 유지되길 기도합니다.

12월 20일 (수) / 인도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통하여 배척 받는 기독교인 공동체와 그들을 위한 브리징 학교와 필수 식량과 자원 공급이 계속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산과 아루쉬와 같은 박해 받는 아이들은 무료 브리징 학교가 개설되기 전에는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1일 (목)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오픈도어는 앞으로 4년간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세계 교회들이 아프리카의 폭력적 박해에 맞서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만연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 이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향후 4년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400만명의 기독교인들을 접촉하고, 영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2일 (금) / 인도네시아

일부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을 미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주택 단지에서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6세 기독교 소년 아디(가명)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용기와 단호한 믿음이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 부모들 또한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3 (토) /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소년들은 성적 학대, 강제 결혼 등의 문제에 취약한 집단입



12월 1일 (금) / 다가오는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밀스런 곳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은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들의 믿음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일 (토) / 에티오피아

무슬림이나 정교회 교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내 종교적 관용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파실과 예자나 테데세(가명, 7세)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실과 예자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안에서 성장하길 기도하며 에티오피아 지역사회에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3일 (일) / 에티오피아

오픈도어는 기독교인과 다른 신앙 공동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연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실과 예

자나의 마을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브리징 스쿨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4일 (월) / 에티오피아

지역사회 학교의 학생 수가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려면 학교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땅과 자금이 공급되길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은 박해받는 교회의 어린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 중에서도 방학 중에는 트라우마 상담과 치유 캠프를 제공합니다. 이 분야를 통해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12월 5일 (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 소녀들은 성적 학대, 강제 결혼 등의 문제에 취약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소년들은 종종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어린 나이에 재정 등 부모의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신실한 남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2월 6일 (수) / 스리랑카

2022년에 스리랑카에서 마약 관련 체포 건수가 39% 증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중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둘러싼 친구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월 7일 (목) /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기회의 불균형이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낙담과 분노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스리랑카에 모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폭력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2월 8일 (금) / 북한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배포 경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구호품과 기독교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과 지혜, 그리고 기꺼이 돕는 사람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12월 9일 (토) / 북한

북한의 비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신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알려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의 참된 본질이 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0일 (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신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신자들이 지지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고, 깨어진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 곳이 없는 새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지역 가정교회들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대함이 지역 사회에 빛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1일 (월)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의 호스텔 프로그램은 기독교 학생들에게 성경적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워크숍, 토론 및 멘토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의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2일 (화) / 말레이시아

매년 사라왁에서는 오순절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디오 성경을 통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에게 더욱더 힘과 지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2월 13일 (수) /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특별히 '스포츠'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도로 연합의식과 친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루나이 교회는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4일 (목) / 브루나이

성령 하나님이 신자들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단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눈이 열려 브루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를 위해 특히 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브루나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5일 (금)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신자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역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과 긴장으로 가득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6일 (토) / 평화를 위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12월 17일 (일) / 필리핀 남부

12세 제니는 무슬림 공동체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종종 차별을 받습니다. 제니는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듣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니의 영적 성장과 함께 가정교회의 청소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2월 18일 (월) / 필리핀 남부

(기독교인과 같은) '하위' 부족의 가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일부는 특정 지역에서 고기잡이가 제한되며, 고기를 잡을 경